

사·부·대·중

“스님을 찾습니다”



주경 조계종 포교원 포교국장

지난 여름, 중국 북경의 불자 몇 명이 포교원을 찾은 적이 있었다. 지도법사 스님을 구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유학중이던 한 스님이 법회를 이끌어왔는데, 그 스님이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법회를 봉행할 수 없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의 현황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탁대한 물적 인적 투자를 통해 고급호텔 등을 빌려 예배를 보는 개신교와는 달리, 현지 사찰의 법당을 잠시 빌려 법회를 보다가 중국공안에 체포되는 일을 겪기도 하였지만 간절한 신심으로 법회를 계속해온 가슴 앓는 사연이었다. 잠시 포교를 위해 외국생활을 체험한 바가 있는 까닭에 북경에 거주하는 불자들의 어려운 현실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달, 잊고 있지는 않았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 조금씩 북경불자들의 일이 문어갈 즈음 북경불자들이 다시 포교원이 들었다. 내년도 군승입관자 모집을 위해 바빠 다니고 있던 때였다.

스님이 계시지 않은 지난 몇 달 동안 법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

목탁소리

김재경 <취재1부 기자>

지난 16일 영국 런던에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세계의 대형댐 건설정책이 초래한 사회·환경적 비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온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의 최종보고서 발표가 있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댐은 세계적으로 4천만 내지 8천만명의 주민을 고향과 삶의 터전에서 이주시켰다. 이로 인해 이주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역공동체가 붕괴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도 악화되었다. 홍수조절 및 발전·용수를 다목적 대형댐은 거대한 환경재앙을 초래하여 수많은 어류 및 수생생물들이 멸종하고, 광대한 숲과 습지, 농토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세계댐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댐도 건설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신규 개발계획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존의 물과 에너지 공급체계의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이제 댐 건설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국내의 수자원 정책은 거꾸

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22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리산댐 개발계획이 이미 5년 전 문민정부에서 검토한 뒤 부산까지의 송수관 매설 등 기술적인 한계, 막대한 개발과 관리비용 등 타당성이 희박해 폐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시민·환경단체의 공개질의에 침묵으로만 일관해 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수자원 정책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허탈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 8월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을 만들어 연말까지 조사를 벌인 뒤 내년 6월 중앙 분점댐과 산청 덕천강댐 등 2개의 지리산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수자원 정책 결정과정을 미루어 볼 때 지역민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댐 해체, 생태계 복원’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수자원 공급위주의 담건설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관리 위주의 친환경적인 수자원 관리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수자원 정책은 거꾸

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22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리산댐 개발계획이 이미 5년 전 문민정부에서 검토한 뒤 부산까지의 송수관 매설 등 기술적인 한계, 막대한 개발과 관리비용 등 타당성이 희박해 폐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시민·환경단체의 공개질의에 침묵으로만 일관해 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수자원 정책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허탈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 8월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을 만들어 연말까지 조사를 벌인 뒤 내년 6월 중앙 분점댐과 산청 덕천강댐 등 2개의 지리산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수자원 정책 결정과정을 미루어 볼 때 지역민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댐 해체, 생태계 복원’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수자원 공급위주의 담건설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관리 위주의 친환경적인 수자원 관리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수자원 정책은 거꾸

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22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리산댐 개발계획이 이미 5년 전 문민정부에서 검토한 뒤 부산까지의 송수관 매설 등 기술적인 한계, 막대한 개발과 관리비용 등 타당성이 희박해 폐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시민·환경단체의 공개질의에 침묵으로만 일관해 온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수자원 정책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허탈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지난 8월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을 만들어 연말까지 조사를 벌인 뒤 내년 6월 중앙 분점댐과 산청 덕천강댐 등 2개의 지리산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그간의 수자원 정책 결정과정을 미루어 볼 때 지역민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댐 해체, 생태계 복원’이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수자원 공급위주의 담건설 정책을 지양하고, 수요관리 위주의 친환경적인 수자원 관리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수자원 정책은 거꾸

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22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지리산댐 개발계획이 이미 5년 전 문민정부에서 검토한 뒤 부산까지의 송수관 매설 등 기술적인 한계, 막대한 개발과 관리비용 등 타당성이 희박해 폐기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올해는 너무 몸이 뻘뻘했다. 그래서 이제야 제 정신이 드는 것 같다. 6월에는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8월에는 일본에 갔었다. 9월에는 뉴욕 UN총회장의 세계평화 정상회의에서 ‘평화의 노래’를 읽어야 했다.

돌아오자마자 스웨덴 스톡홀름과 요테보리에서의 시 낭독과 강연을 한 것이 10월이었다. 11월은 폴란드의 ‘2000 크라카우에출륙전’의 시인축전에 참가했다. 이것은 그곳 시인 마위쉬와 험보르스카가 상급의 일부를 출연해 만들어서 시인 10여명을 초청해서 1주일 동안 숨막히게 팍 찬 일정을 다하는 일이었다. 이런 중에도 대산문화재단의 국제모임, 포럼에 참가했다. 그 행사에 온 시인 개리 스나이더와는 공동으로 시 낭송을 하고 함께 경주와 운문사 지리산 등지를 떠돌았다.

스나이더가 떠나자 이번에는 스웨덴 문예지 편집장이 그곳에서의 두차례 인터뷰에 더해 할 것이 있기도 해서 한국에 왔으므로 그와 함께 경주 석굴암을 찾고 해인사에 가고 운문사에도 다시 갔다.

내가 운문사에 간 것은 43년 전이었다. 그때는 청담스님과 동행이었다. 비로전 등의 당우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경내는 실컷 황폐해진 채였다. 거기에 별로 신심이 있어보이지 않는 비구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대우로 나와버렸다.

그런 처량한 기억 밖에 없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내 친구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운문사를 반갑게 만났고 이따금 풍문으로 운문사가 크게 중흥된 일을 알게 되었다.

운문사대학장 명성스님은 50년대 평화운동 당시 묘엄스님과 젊은 비구니 쌍벽으로 여러 승니대회에 참석했을 때부터 지면이었다. 그리고 보니 그 세대 위에는 비구니 대표로 인흥, 수옥 스님도 있었고, 한 두번은 수덕사 일엽스님도 선학원으로 나

를 찾아온 적이 있다.

시간은 썩 잘 흘러감으로써 그런 일들을 지난 날 저쪽의 호젓한 풍경의 하나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 나에게 웬일로 올해 두번이나 찾았던 곳이 운문사였다.

그곳을 찾은 까닭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난 해 1년을 미국 하버드와 버클리에서 보낼 때 한국불교의 실상이 조계사에서의 불상사로 세계도처에 알려진 뒤에서 그곳 교수나 여러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불교의 어이없는 난동이 화제가 되는 곤혹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운문사! 이곳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청정세계인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종단의 탐욕적인 패권주의로 더럽혀진 인상을 씻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호거산중(虎踞山中)은 때마침 운문사가 가득했고 경내는 경건했다. 새로 배치된 기암의 여러 당우와 묘사재들이 격조를 뽐내고 있었다.

지금 여러 사찰들이 앞을 다투어 건물지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전박한 물질과 앙을 드러내기 십상인데, 운문도당의 품위는 뜻밖에도 자못 높은 것이었다.

나는 여기 저기 안내하는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긴 창고 안의 한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대중들이 울려 때 신는 장화와 비옷, 작업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호미들이 대중 수대로 걸려있었다. 어디 하나 흠을 묻힌 데 없이 연장을 잘 간수하고 있었다. ‘빈 손인데 호미를 들었도다!’ 라는 선방의 한 구절이 떠올랐거나 이와 함께 내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났다.

아, 여기야말로 정법이 살아있는 곳이다! 여기야말로 1천6백년 한국불교의 갖은 오욕을 다 녹여주는 곳이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왔다. 오랜만에 절집에서 쓰는 ‘어법하다’는 말이 이 도량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외국 친구들에게 이런 청규의 운문사를 보여준 것이 열 번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확인 2백60명의 강당에서 그들이 절을 하고 강연을 한 것이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이를테면 앞으로 비구니 8경법 따위 꼭 쉬게 하고 총무원장도 비구니 속에서 나오는 것과 향후 60년쯤 뒤에는 여성 중정도 나올 만한 시절인연 말이다.

운문사는 지난 몇 십년 동안의 지질 줄 모르는 정진으로 수많은 학승을 배출해 내면서 하나 둘 당우의 장엄도 어디 하나 소홀함 없이 이루었다.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대웅전 세 주세불의 배열도 놀라운 발상이었다. 도량은 방금 비질한듯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후원벽에 바닷로 걸려있는 칫솔들도 질서정연했다.

마루밑 땃돌위의 가지런한 흰 고무신들 자체가 예불위의 안행과 더불어 실로 법월에 가까운 절경이 아니던가.

나는 아직 경기도 화성의 묘엄스님 도량에는 가보지 못했거니와 이들 비구니승가대학이야말로 그동안 공염불에 그치지 쉬웠던 도제양성의 허세를 능히 탐감해 준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운문사에는 몇 백년 나이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그곳 도량의 옛과 오늘을 지켜주고 있다. 한 그루라고 하지만 한 그루에서 두 줄기로 나뉘어져 솟았으니 불현듯 옛 천축의 사라쌍수를 생각나게끔 한다.

그 은행나무 쌍수 밑에 유리 탁자를 두어 거기에 은행나무 잎새들이 그림자처럼 피어날아며 멀리 앞산 뒷산의 산 그림자들도 내려와 함께 있으니 그것이 또 하나의 승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명성스님의 다실에는 술차와 우전차가 은은한 차내음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곳을 거처한 사람이나 지금의 산중 대중이 함께 이루어낸 청정도량임에 틀림없으나 거기에 명성스님의 오묘한 힘 없이는 오늘의 운문사와 운문승가대학의 장관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는 너무 몸이 뻘뻘했다. 그래서 이제야 제 정신이 드는 것 같다. 6월에는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8월에는 일본에 갔었다. 9월에는 뉴욕 UN총회장의 세계평화 정상회의에서 ‘평화의 노래’를 읽어야 했다.

돌아오자마자 스웨덴 스톡홀름과 요테보리에서의 시 낭독과 강연을 한 것이 10월이었다. 11월은 폴란드의 ‘2000 크라카우에출륙전’의 시인축전에 참가했다. 이것은 그곳 시인 마위쉬와 험보르스카가 상급의 일부를 출연해 만들어서 시인 10여명을 초청해서 1주일 동안 숨막히게 팍 찬 일정을 다하는 일이었다. 이런 중에도 대산문화재단의 국제모임, 포럼에 참가했다. 그 행사에 온 시인 개리 스나이더와는 공동으로 시 낭송을 하고 함께 경주와 운문사 지리산 등지를 떠돌았다.

스나이더가 떠나자 이번에는 스웨덴 문예지 편집장이 그곳에서의 두차례 인터뷰에 더해 할 것이 있기도 해서 한국에 왔으므로 그와 함께 경주 석굴암을 찾고 해인사에 가고 운문사에도 다시 갔다.

내가 운문사에 간 것은 43년 전이었다. 그때는 청담스님과 동행이었다. 비로전 등의 당우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경내는 실컷 황폐해진 채였다. 거기에 별로 신심이 있어보이지 않는 비구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대우로 나와버렸다.

그런 처량한 기억 밖에 없던 곳이었다. 그러다가 내 친구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운문사를 반갑게 만났고 이따금 풍문으로 운문사가 크게 중흥된 일을 알게 되었다.

운문사대학장 명성스님은 50년대 평화운동 당시 묘엄스님과 젊은 비구니 쌍벽으로 여러 승니대회에 참석했을 때부터 지면이었다. 그리고 보니 그 세대 위에는 비구니 대표로 인흥, 수옥 스님도 있었고, 한 두번은 수덕사 일엽스님도 선학원으로 나

를 찾아온 적이 있다.

시간은 썩 잘 흘러감으로써 그런 일들을 지난 날 저쪽의 호젓한 풍경의 하나로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 나에게 웬일로 올해 두번이나 찾았던 곳이 운문사였다.

그곳을 찾은 까닭이 있다. 그것은 내가 지난 해 1년을 미국 하버드와 버클리에서 보낼 때 한국불교의 실상이 조계사에서의 불상사로 세계도처에 알려진 뒤에서 그곳 교수나 여러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불교의 어이없는 난동이 화제가 되는 곤혹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운문사! 이곳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청정세계인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종단의 탐욕적인 패권주의로 더럽혀진 인상을 씻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호거산중(虎踞山中)은 때마침 운문사가 가득했고 경내는 경건했다. 새로 배치된 기암의 여러 당우와 묘사재들이 격조를 뽐내고 있었다.

지금 여러 사찰들이 앞을 다투어 건물지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전박한 물질과 앙을 드러내기 십상인데, 운문도당의 품위는 뜻밖에도 자못 높은 것이었다.

나는 여기 저기 안내하는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긴 창고 안의 한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대중들이 울려 때 신는 장화와 비옷, 작업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호미들이 대중 수대로 걸려있었다. 어디 하나 흠을 묻힌 데 없이 연장을 잘 간수하고 있었다. ‘빈 손인데 호미를 들었도다!’ 라는 선방의 한 구절이 떠올랐거나 이와 함께 내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났다.

아, 여기야말로 정법이 살아있는 곳이다! 여기야말로 1천6백년 한국불교의 갖은 오욕을 다 녹여주는 곳이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왔다. 오랜만에 절집에서 쓰는 ‘어법하다’는 말이 이 도량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외국 친구들에게 이런 청규의 운문사를 보여준 것이 열 번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확인 2백60명의 강당에서 그들이 절을 하고 강연을 한 것이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이를테면 앞으로 비구니 8경법 따위 꼭 쉬게 하고 총무원장도 비구니 속에서 나오는 것과 향후 60년쯤 뒤에는 여성 중정도 나올 만한 시절인연 말이다.

운문사는 지난 몇 십년 동안의 지질 줄 모르는 정진으로 수많은 학승을 배출해 내면서 하나 둘 당우의 장엄도 어디 하나 소홀함 없이 이루었다.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대웅전 세 주세불의 배열도 놀라운 발상이었다. 도량은 방금 비질한듯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후원벽에 바닷로 걸려있는 칫솔들도 질서정연했다.

마루밑 땃돌위의 가지런한 흰 고무신들 자체가 예불위의 안행과 더불어 실로 법월에 가까운 절경이 아니던가.

나는 아직 경기도 화성의 묘엄스님 도량에는 가보지 못했거니와 이들 비구니승가대학이야말로 그동안 공염불에 그치지 쉬웠던 도제양성의 허세를 능히 탐감해 준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운문사에는 몇 백년 나이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그곳 도량의 옛과 오늘을 지켜주고 있다. 한 그루라고 하지만 한 그루에서 두 줄기로 나뉘어져 솟았으니 불현듯 옛 천축의 사라쌍수를 생각나게끔 한다.

그 은행나무 쌍수 밑에 유리 탁자를 두어 거기에 은행나무 잎새들이 그림자처럼 피어날아며 멀리 앞산 뒷산의 산 그림자들도 내려와 함께 있으니 그것이 또 하나의 승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명성스님의 다실에는 술차와 우전차가 은은한 차내음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곳을 거처한 사람이나 지금의 산중 대중이 함께 이루어낸 청정도량임에 틀림없으나 거기에 명성스님의 오묘한 힘 없이는 오늘의 운문사와 운문승가대학의 장관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개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필명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본지 논설위원

운문사 은행나무와 한국불교

운문사! 이곳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청정세계인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종단의 탐욕적인 패권주의로 더럽혀진 인상을 씻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호거산중(虎踞山中)은 때마침 운문사가 가득했고 경내는 경건했다. 새로 배치된 기암의 여러 당우와 묘사재들이 격조를 뽐내고 있었다.

지금 여러 사찰들이 앞을 다투어 건물지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전박한 물질과 앙을 드러내기 십상인데, 운문도당의 품위는 뜻밖에도 자못 높은 것이었다.

나는 여기 저기 안내하는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긴 창고 안의 한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대중들이 울려 때 신는 장화와 비옷, 작업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호미들이 대중 수대로 걸려있었다. 어디 하나 흠을 묻힌 데 없이 연장을 잘 간수하고 있었다. ‘빈 손인데 호미를 들었도다!’ 라는 선방의 한 구절이 떠올랐거나 이와 함께 내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났다.

아, 여기야말로 정법이 살아있는 곳이다! 여기야말로 1천6백년 한국불교의 갖은 오욕을 다 녹여주는 곳이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왔다. 오랜만에 절집에서 쓰는 ‘어법하다’는 말이 이 도량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외국 친구들에게 이런 청규의 운문사를 보여준 것이 열 번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확인 2백60명의 강당에서 그들이 절을 하고 강연을 한 것이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이를테면 앞으로 비구니 8경법 따위 꼭 쉬게 하고 총무원장도 비구니 속에서 나오는 것과 향후 60년쯤 뒤에는 여성 중정도 나올 만한 시절인연 말이다.

운문사는 지난 몇 십년 동안의 지질 줄 모르는 정진으로 수많은 학승을 배출해 내면서 하나 둘 당우의 장엄도 어디 하나 소홀함 없이 이루었다.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대웅전 세 주세불의 배열도 놀라운 발상이었다. 도량은 방금 비질한듯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후원벽에 바닷로 걸려있는 칫솔들도 질서정연했다.

마루밑 땃돌위의 가지런한 흰 고무신들 자체가 예불위의 안행과 더불어 실로 법월에 가까운 절경이 아니던가.

나는 아직 경기도 화성의 묘엄스님 도량에는 가보지 못했거니와 이들 비구니승가대학이야말로 그동안 공염불에 그치지 쉬웠던 도제양성의 허세를 능히 탐감해 준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운문사에는 몇 백년 나이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그곳 도량의 옛과 오늘을 지켜주고 있다. 한 그루라고 하지만 한 그루에서 두 줄기로 나뉘어져 솟았으니 불현듯 옛 천축의 사라쌍수를 생각나게끔 한다.

그 은행나무 쌍수 밑에 유리 탁자를 두어 거기에 은행나무 잎새들이 그림자처럼 피어날아며 멀리 앞산 뒷산의 산 그림자들도 내려와 함께 있으니 그것이 또 하나의 승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명성스님의 다실에는 술차와 우전차가 은은한 차내음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곳을 거처한 사람이나 지금의 산중 대중이 함께 이루어낸 청정도량임에 틀림없으나 거기에 명성스님의 오묘한 힘 없이는 오늘의 운문사와 운문승가대학의 장관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운문사! 이곳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청정세계인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종단의 탐욕적인 패권주의로 더럽혀진 인상을 씻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호거산중(虎踞山中)은 때마침 운문사가 가득했고 경내는 경건했다. 새로 배치된 기암의 여러 당우와 묘사재들이 격조를 뽐내고 있었다.

지금 여러 사찰들이 앞을 다투어 건물지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전박한 물질과 앙을 드러내기 십상인데, 운문도당의 품위는 뜻밖에도 자못 높은 것이었다.

나는 여기 저기 안내하는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긴 창고 안의 한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대중들이 울려 때 신는 장화와 비옷, 작업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호미들이 대중 수대로 걸려있었다. 어디 하나 흠을 묻힌 데 없이 연장을 잘 간수하고 있었다. ‘빈 손인데 호미를 들었도다!’ 라는 선방의 한 구절이 떠올랐거나 이와 함께 내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났다.

아, 여기야말로 정법이 살아있는 곳이다! 여기야말로 1천6백년 한국불교의 갖은 오욕을 다 녹여주는 곳이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왔다. 오랜만에 절집에서 쓰는 ‘어법하다’는 말이 이 도량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았다.

운문사! 이곳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청정세계인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종단의 탐욕적인 패권주의로 더럽혀진 인상을 씻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호거산중(虎踞山中)은 때마침 운문사가 가득했고 경내는 경건했다. 새로 배치된 기암의 여러 당우와 묘사재들이 격조를 뽐내고 있었다.

지금 여러 사찰들이 앞을 다투어 건물지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전박한 물질과 앙을 드러내기 십상인데, 운문도당의 품위는 뜻밖에도 자못 높은 것이었다.

나는 여기 저기 안내하는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긴 창고 안의 한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대중들이 울려 때 신는 장화와 비옷, 작업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호미들이 대중 수대로 걸려있었다. 어디 하나 흠을 묻힌 데 없이 연장을 잘 간수하고 있었다. ‘빈 손인데 호미를 들었도다!’ 라는 선방의 한 구절이 떠올랐거나 이와 함께 내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났다.

아, 여기야말로 정법이 살아있는 곳이다! 여기야말로 1천6백년 한국불교의 갖은 오욕을 다 녹여주는 곳이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곳이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왔다. 오랜만에 절집에서 쓰는 ‘어법하다’는 말이 이 도량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외국 친구들에게 이런 청규의 운문사를 보여준 것이 열 번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확인 2백60명의 강당에서 그들이 절을 하고 강연을 한 것이다. 나는 속으로 빌었다. 이를테면 앞으로 비구니 8경법 따위 꼭 쉬게 하고 총무원장도 비구니 속에서 나오는 것과 향후 60년쯤 뒤에는 여성 중정도 나올 만한 시절인연 말이다.

운문사는 지난 몇 십년 동안의 지질 줄 모르는 정진으로 수많은 학승을 배출해 내면서 하나 둘 당우의 장엄도 어디 하나 소홀함 없이 이루었다.

연등불 석가모니불 미륵불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대웅전 세 주세불의 배열도 놀라운 발상이었다. 도량은 방금 비질한듯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후원벽에 바닷로 걸려있는 칫솔들도 질서정연했다.

마루밑 땃돌위의 가지런한 흰 고무신들 자체가 예불위의 안행과 더불어 실로 법월에 가까운 절경이 아니던가.

나는 아직 경기도 화성의 묘엄스님 도량에는 가보지 못했거니와 이들 비구니승가대학이야말로 그동안 공염불에 그치지 쉬웠던 도제양성의 허세를 능히 탐감해 준다고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운문사에는 몇 백년 나이의 은행나무 한 그루가 그곳 도량의 옛과 오늘을 지켜주고 있다. 한 그루라고 하지만 한 그루에서 두 줄기로 나뉘어져 솟았으니 불현듯 옛 천축의 사라쌍수를 생각나게끔 한다.

그 은행나무 쌍수 밑에 유리 탁자를 두어 거기에 은행나무 잎새들이 그림자처럼 피어날아며 멀리 앞산 뒷산의 산 그림자들도 내려와 함께 하니 그것이 또 하나의 승지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명성스님의 다실에는 술차와 우전차가 은은한 차내음을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곳을 거처한 사람이나 지금의 산중 대중이 함께 이루어낸 청정도량임에 틀림없으나 거기에 명성스님의 오묘한 힘 없이는 오늘의 운문사와 운문승가대학의 장관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운문사! 이곳이야말로 한국불교의 청정세계인 것을 세상에 알림으로써 종단의 탐욕적인 패권주의로 더럽혀진 인상을 씻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과연 호거산중(虎踞山中)은 때마침 운문사가 가득했고 경내는 경건했다. 새로 배치된 기암의 여러 당우와 묘사재들이 격조를 뽐내고 있었다.

지금 여러 사찰들이 앞을 다투어 건물지량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상당한 부분이 전박한 물질과 앙을 드러내기 십상인데, 운문도당의 품위는 뜻밖에도 자못 높은 것이었다.

나는 여기 저기 안내하는 스님을 따라다니다가 긴 창고 안의 한 곳을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대중들이 울려 때 신는 장화와 비옷, 작업화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벽에는 호미들이 대중 수대로 걸려있었다. 어디 하나 흠을 묻힌 데 없이 연장을 잘 간수하고 있었다. ‘빈 손인데 호미를 들었도다!’ 라는 선방의 한 구절이 떠올랐거나 이와 함께 내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났다.

아, 여기야말로 정법이 살아있는 곳이다! 여기야말로 1천6백년 한국불교의 갖은 오욕을 다 녹여주는 곳이다. 살아있다! 살아있는 곳이다!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인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9114

뜻대로 사는 길
아바타 코스

당신은 먼 길을 왔고 아직도 갈 길이 멍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당신이 깨어나길 재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모든 갈등과 고통·구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있습니다.

단 9일간의 시간으로
당신 자신에게 생애최고의 선물을 안겨 주십시오.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코스일정에 관하여 언제든지 마스터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